

인공지능(AI) 및 안전보건 분야 업무교류로 감사역량 강화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체결
- 디지털 감사기법 발굴 및 안전보건 분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정혜선, 이하 “공단”)은 지난 20일 울산 중구 소재 공단 본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상임감사위원 홍정민)와 ‘AI 및 안전보건 분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및 안전보건 분야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2026. 7. 20.(월) 15:20~
- 장소 : 공단 본부(울산 중구 종가로 400)
- 체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혜선 상임감사 등
(한국수자원공사) 홍정민 상임감사위원 등

이번 협약은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과 안전보건 분야 감사기법·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양 기관의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안전한 일터 실현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류 확대 △감사 전문인력 지원 및 교차감사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법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방식을 확대하고,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 지식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감사업무의 실효성 및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혜선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과 안전보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감사역량을 함께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전문인력 협력을 통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감사 성과를 창출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기여하겠다” 라고 말했다.

홍정민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양 기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AI 및 안전 보건 분야 감사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감사실 성과감사부	책임자	부 장	양수빈 (052-703-0791)
		담당자	과 장	심은솔 (052-703-0794)

